

‘태극자매’ LPGA 본격 승수쌓기 나선다

16일 파운더스컵 개막... 고진영·박성현·전인지 등 출격 신바람 탄美에 대반격 예고...세계랭킹 1~3위는 모두 불참

2018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본격적인 미국 본토 대회를 시작한다. 초반 미국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한국 선수들이 반격에 나선다.

16일(한국시간부터) 나흘 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외일드 파이어골프클럽(파72·6679야드)에서 LPGA 투어 시즌 5번째 대회인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달러)이 열린다.

미국에서 열리는 시즌 첫 대회다. 앞서 4개 대회는 바하마(1월), 호주, 태국, 싱가포르(이상 2월)를 돌며 열렸다. 파운더스컵을 시작으로 6월 말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까지 14개 대회 연속 미국에서 투어 일정의 예정돼 있다.

지난 시즌 15승을 합작하는 등 최근 몇 년간 LPGA 투어를 휩쓴 ‘태극자매’들의 기세가 올 시즌 초반에는 다소 누그러졌다.

4개 대회 중 호주여자오픈에서 고진영(23·하이트진로)의 우승이 유일하다.

나머지 3개 대회는 모두 미국 선수들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미국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의 페이스를 보여주며 분위기를



고진영 박성현 전인지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주춤했던 한국 선수들은 그동안 강한 면모를 보인 이 대회를 통해 분위기 반격을 노린다.

한국은 2015년 김효주(23·롯데), 2016년 김세영(25·미래에셋)이 우승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전인지(24·KB금융그룹)가 나흘 동안 24연타를 기록하며 준우승했다.

세계랭킹 1~3위 평산산(중국), 렉시 톰슨(미국), 유소연(28·메디힐)이 모두 불참하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랭킹 4위 박성현(25·KEB하나은행), 메이저권 전인지(24·KB금융그룹), 유력한 신인왕 후보 고진영 등 총 19

명이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주목할 선수는 루키 고진영이다. 데뷔 첫 대회에서 우승하며 67년 만에 LPGA 투어 새 역사를 쓴 고진영은 미국 데뷔전을 치른다.

우승 포함, 3개 대회 연속 톱10에 오른 고진영은 각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신인왕 레이스(271점)는 물론 올해의 선수 포인트(39점), 상금(28만 2641달러), 그린적중률(85.65%), 드라이버 정확도(95.83%) 등에서 1위다.

평균 타수 부문은 제시카 코다(미국·67.375타)에 이어 2위(68.25타)

다. 정확도 높은 샷을 앞세워 데뷔 첫 4개 대회 연속 톱10은 물론 가장 먼저 2승을 신고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20위권에 머문 박성현은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박성현은 이번 대회 톱시드를 가져다. 특유의 장타를 앞세워 투어 2위의 높은 그린 적중률(83.33%)을 과시했지만 퍼팅이 발목을 잡고 있다.

라운드당 평균 퍼팅 31.13개로 전체 116위에 머물러 있다. 퍼팅감만 되찾는다면 언제든 선두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량이다.

지난 시즌 준우승만 5차례 했던 전인지도 지긋지긋한 징크스를 털고 모처럼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는 각오다.

싱가포르에서 몸을 쫓 ‘골프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도 두 번째 대회에 나선다. 2016년 이 대회에서 LPGA 투어 역대 최저타 타이 기록(27언더파 261타)으로 우승한 김세영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뜨거운 샷감을 자랑하는 제시카 코다와 HSBC 챔피언십에서 약 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미셸 위(미국)가 한국의 대항마로 꼽힌다. ‘디펜딩 챔피언’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도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참가하는 대회마다 상위권에 포진하는 모리아·에리아 쭈타누간(태국), 브룩 헨더슨(캐나다), 크리스티 커(미국), 리디아 고(뉴질랜드) 등도 시즌 첫 승을 노린다. /뉴시스



특점 안치홍 13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8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 5회말 1사 2, 3루에서 KIA 2루주자 안치홍이 8번타자 김민식의 2루타를 틈타 득점하고 있다. /뉴시스

‘철인’ 신의현, 투혼 레이스... 바이애슬론 12.5km 5위

다른 선수들보다 700m 더 주행하고도 상위권 근접한 성적

‘철인’ 신의현(38·장성건설)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바이애슬론에서 700m를 더 달리고도 상위권에 드는 투혼을 발휘했다.

13일 오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장애인 남자 바이애슬론 12.5km(좌식)에서 50분01초9의 기록으로 5위를 했다.

첫날 바이애슬론 7.5km(좌식)에서 5위를 한 뒤 다음날 크로스컨트리 15km에서 동메달을 따낸 신의현은 겨우 하루 휴식 후 두 번째 메달 사냥에 나섰다.

하루만 쉬었지만 피로가 풀렸는지 신의현의 몸은 가벼웠다.

2.57km 첫 사격지점까지 대형을 이끌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

첫 사격에서 한 발을 실수해 100m의 페널티를 받았다. 바이애슬론은 사격 한발을 놓칠 때마다 100m 더 돌아야한다. 5위로 떨어졌지만 빠른 주행으로 2위에 올랐다.

그러나 두 번째 사격지점에서 5발 중 4발이 과녁을 벗어났다.

강한 바람 탓에 영점을 잡는데 애를 먹었다. 400m를 더 돌면서 순위는 8위까지 곤두박질했다.

3, 4번째 사격에서도 1발씩을 놓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사격을 마치고 2km도 채 남지 않은 구간에서 앞선 선수들을 따

라 잡으며 5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타라스 라드(우크라이나)가 45분 35초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국의 대니얼 크노센(46분 37초3)과 앤드루 소울(47분 08초7)이 2, 3위를 차지했다.

라드와 크노센은 사격에서 실수가 없었다. 동메달을 획득한 소울도 사격 실수는 2발에 불과했다.

신의현은 이들보다 많게는 700m를 더 주행하면서도 경이로운 체력으로 메달권에 근접한 성적을 냈다.

신의현은 14일 크로스컨트리 스프린트(좌식), 16일 남자 바이애슬론 15km, 17일 남자 크로스컨트리 7.5km(좌식)에도 차례로 출전한다. /뉴시스



기성용, 이탈리아 가나... AC밀란과 3년 계약

기성용(스완지시티)의 AC밀란(이탈리아) 이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스포츠 매체 칼치오 메르카토는 13일(한국시간) “기성용과 AC밀란이 3년 계약에 합의했다. 조만간 메디컬 테스트와 계약서 서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성용이 AC밀란으로 이적하기 위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AC밀란은 기성용의 전술적 활용도와 마케팅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기성용은 현 소속팀 스완지시티와 2017~2018 시즌이 끝나는 오는 6월 계약이 종료된다.

AC밀란 마시모 미라벨리 단장은 과거 선덜랜드 시절 스카우트로 활동한 적이 있다. AC밀란은 계약 종료 후 자유계약 선수(FA)로 풀리는 기성용을 이적료 없이 영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 칼치오 메르카토는 “기성용의 대리인과 입단 조건에 합의했으며 세부적인 협상도 상당히 진행됐다”고 전했다.

밀란은 이탈리아 세리에A에서 18차례 우승, 유벤투스(33회)에 이어 가장 많이 자국 리그 정상에 오른 팀이다. 유럽 무대에서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7회로 레알 마드리드(12회)에 이어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다. /뉴시스

Wow 와우투어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즐거움 제주 여행 패키지

항공 ✈️ 숙박 🏠 렌트카 🚗 골프 🏌️

와우투어로 알아보기

단체 문의 환영

일본 기타큐슈 699,000~

필리핀 세부 449,000~

다낭 749,000~

하노이 699,000~

보라카이 449,000~

✪ 항공권 예약서비스

✪ 해외여행 예약서비스

✪ 제주도여행 예약서비스

✪ 국내여행 예약서비스

무안출발 항공권

세부, 보라카이, 기타큐슈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49, 농협 5층(동림동) Tel 062-522-7767

http://wow-tour.com